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분양 완료 ‘산단 활력’

24개 입주기업 총 매출 35억3000만원 증가 구내식당 운영 등 ‘근로자 중심’ 환경 조성

광양시 익산일반산업단지내 위치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가 분양률 100%를 달성한 뒤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산단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센터는 광양시 익산

일반산업단지 내 연면적 약 7943㎡,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차전지, 스마트 제조, 정보기술(IT) 솔루션 등 미래 산업 분야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곳은 교육, 연구, 복지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3억1200만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했으며, 그 결과 입주기업 총 매출은 입주 전보다 35억3000만원 증가했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난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한 점도 주목된다. 센터는 지난 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BF) 본인증을 취득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따부터는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해 그동안 급식 인프라가 부족했던 익산산단 내 입주기업과 기관 종사자들에게 식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단에 입주한 70여 개 기업·기관 종사자들의 복지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층별 공용 라운지와 커뮤니티 공

간도 입주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돕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센터는 3.3㎡당 8970원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남해고속도로와 광양항과 가까워 교통과 물류 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철강열처리센터, 금속소재 복합성형센터,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센터,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센터 등 인근 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한 기술 협업도 가능해 기업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분양률 100% 달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인제가 모이는 익산산단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지원을 강화해 입주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환급받으세요”

어른 2000원·어린이 1000원 담양사랑상품권 지급

담양군은 대표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찾는 방문객에게 입장료 전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최근 시작했다. 이번 제도는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방문객이 메타세쿼이아길 입장권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만큼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즉시 돌려받아 군 전역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두 달간 ‘임시 환급쿠폰’을 지급하며 시범 운영을 진

행했다. 이 기간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했다. 이에 21일부터는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 전액을 정식 담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 받은 ‘임시 환급 쿠폰’은 정식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해당 쿠폰은 4월 30일까지 메타센터 및 담양읍 중앙로 일대 상가에서 사

용해야 하며, 상가에서 수령된 쿠폰은 6월 30일까지 담양군청 관광과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메타세쿼이아길을 찾는 관광객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며 머무는 관광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 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최근 프랑스 마스터 셰프들이 백양사 사찰음식 시식 전 합장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장성군

프랑스 셰프들, 백양사 사찰음식 매력 ‘흡입’

200여명 인공 조미료 없는 자연 맛 ‘감명’

장성군이 ‘프랑스마스터셰프협회(MCF)’ 요리사 200여명이 최근 ‘전남 미식 팸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양사 사찰음식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1949년 설립된 ‘MCF’는 전 세계 600여 명의 프랑스 출신 셰프들이 활동하는 조직이다. 이번 방문에선 200여명이 3개조로 나눠 18일부터 20일까지 장성을 찾았다. 백양사 천진암에 도착한 셰프들은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과 함께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를 체험했다. 유가농 표고버섯, 미나리, 깻잎, 방울토마토, 달기, 매운, 토종생강, 두부 등 식재료는 장성친환경농업협회가 준비했다. 인

공 조미료 없이 자연의 맛을 살린 사찰음식과 수행자의 철학을 담은 조리 과정에 깊이 감명받았다는 후문이다. 행사장 한편에선 장성 친환경 식재료를 알리는 부스가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셰프들은 청정 환경에서 재배된 친환경 장성 농산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한중 군수는 “세계 미식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 마스터 셰프들에게 장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사찰음식, 친환경 식재료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장성 미식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이현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화순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활기

딸기 수확 한창...실전 영농기술 습득 지원

화순군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온실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시설농업 운영 경험과 기술 습득 기회 등을 제공해 창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군은 능주면에 1344㎡ 규모의 2연

동 비닐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입주한 청년 농업인 2명이 딸기(설향)를 재배 중이며, 임대 기간 3년 동안 실전 영농 기술을 익힐 예정이다. 특히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생산된 딸기는 매일 로컬푸드 출하 및 농업법인 위탁판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통돼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주),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청사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순천시

순천, 의료·요양 일상생활 통합돌봄 돌입

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순천시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맞춰 순천형 통합돌봄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협약은 일상생활을 돕는 건강머거리와 병원 이동지원 돌봄 분야의 4개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주)와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 2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기간은 올해 3월 18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대상자의 돌봄 욕구 및 필요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로컬푸드는 대상자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건강식사·식재료·밀키트를 돌봄 대상자 가정에 전달하고 인부를 살피는 식사지원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병원 동행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원봉사자를 매칭해 이동지원을 돕는 어르신 병원 동행사업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일상생활 돌봄 사업을 탄탄하게 마련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민·관 협의체 심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완성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강진 ‘농촌왕진버스’ 의료 사각지대 달린다

의료·재활·검안 서비스 제공...농촌 고령화 대응

강진군은 최근 도암문화회관에서 도암·신전면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24년 처음 시행된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기반이 부족한 농촌 지역 농업인구 60세 이상 주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진군은 더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암면과 신전면을 시작으로 대상 지역을 지난해 3개 면에서 올해 강진군 관내 전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횡수도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 농협중앙회, 도암농협과 협력해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하며 3개 협력 병원, 23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광대 장흥통합병원

의료진이 제공하는 기초 진료와 수액 및 침 서비스, 연세대 스포츠재활연구소 전문 인력이 진행하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및 재활 상담, 맑은 안경원이 제공하는 검안 서비스와 돋보기 지원이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 300명 이상이 의료 혜택을 받았다. 운영은 강진군 농정과장은 “농촌왕진버스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농촌 고령화 문제와 정주여건 개선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현장 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왕진 버스 사업의 진료 과목과 운영 방식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강진군은 최근 도암문화회관에서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강진군

영광, 49세 이하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영광군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다. 지원금은 총 500만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차로 200만원은 영광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후 1년 경과 시 150만원, 2년 경과 시 15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하다. 또 군은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검진항목에 대해 남녀 각각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신혼 부부가 안정적으로 출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